

■ 발행인: 지재식 ■ 편집인: 최광수 ■ 주소: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031-727-4815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디자인 여백(02-2279-9631)



필수유지업무 저지 투쟁 선포

망운영관리업무·고장접수 수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파업을 분쇄 하려는 것

KT노동조합을 비롯한 IT연맹은 7월 18일 노동부가 자리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상급 간부 및 단위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시행령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투쟁사에 나선 IT연맹 강화수 수석부위원장은 통신분야 시행령 예고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강화수 수석부위원장은 유선통신 기술 발전과 이동통신 확대 보급, 자유로운 번호이동제도 도입, 인터넷 발전 등으로 대체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환경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노동부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여 노동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수월한 노동자 통제만을 염두에 둔 노동악법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적절한 현장 의견 수렴을 무시한 채 도입된 시행령이 국회의 의를 통과할 경우 노동자 대투쟁은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 모든 책임이 노동부에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하였다.

한편, IT연맹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5일 기자회견과 7월 11일 성명서 등을 통해 필수유지업무 시행령 도입이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행령으로 인한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통신 분야(KT의 예)

- 가입자의 고장신고 접수/수리업무
-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업무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업무는 실제 KT의 모든 네트워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체로 KT 인력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인원에 해당되며, 실제 노동조합의 가장 큰 주력대오라고 할 수 있기에 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할 경우 KT노동조합의 실제적 단체행동권은 심각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

-그동안 가입자의 고장신고 접수/수리 업무는 아웃소싱된 분야로서 현재 조합원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장차 산별조직 및 해당분야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되는 현실임.

IT연맹 2기 집행부 출범

박홍식(위원장)·김영삼(사무처장)체제...“산별노조 건설에 힘쓸 터”



IT연맹은 19일 교육문화회관에서 2007년 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박홍식위원장과 김영삼 사무처장을 2기 임원으로 선출했다.

단일후보로 동반 출마한 박홍식(위원장, KT파워텔노동조합), 김영삼(사무처장, KT노동조합)

후보는 IT연맹 2기 집행부 공약 사항으로 2대 과제를 설정했다. 첫째, 현실성있는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기치아래 기업별 노조를 넘어 정책과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산별노조 건설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새로운 노동운동방식의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정과를 넘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노동운동을 개척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말보다 실천하는 임원이 되겠다며 조합원들에게는 감동을, 간부들에게는 모범을 보이는 위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홍식 김영삼 후보는 46명 투표자 중 35명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또한 함께 치러진 회계감사에는 박경윤(KT노동조합)·임승빈(KTF노동조합) 후보가 선출됐다.

한편, 참석한 대의원들은 특별 결의문을 채택해 ▲이랜드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당하며 정부는 비정규직을 철폐할 것 ▲IT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조직화 위해 투쟁 할 것 ▲단체행동권 침해하는 필수유지업무 즉각 폐기 ▲산별조직 건설 총력집중 등을 결의했다.

“악질자본 이랜드그룹 돈줄을 끊어라”

민주노총, 전국 65개 이랜드유통매장 불매돌입

민주노총이 이랜드자본 불매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9일 돌입한 이랜드 불매운동은 사측이 성실고집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증폭된 최악의 국면을 끝장내려는 경고인 셈. ‘부당노동 운상’으로 비판받은 이랜드그룹 실제적 돈줄을 끊음으로써 경제적 매출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노동계가 대중에게 고발하려는 사측 비정규직법 악용과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 뿐만 아니라 이랜드자본이 은폐하려는 ‘잔혹한 부당노동행위’를 대중 전체에 폭로하겠다는 의지이다.

민주노총은 뉴코아 16개 점, 홈에버 33개 점, 2001아웃렛 10개 점, 뉴코아내 입점한 김스클럽 16개 점 등 전국에 위치한 4종, 총 65개 이랜드 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출 ‘제로(0)’를 목표로 한 집중불매운동을 펼친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대위’를 구성해 불매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동해 하는 한편 각 지역단위마다 ‘지역지원대책위’를 배치해 현장에서 이랜드 매장 실제 불매를 강도 높게 추진한다.

지역지원대책위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노동단체·여성단체·시민사회단체·학생 등이 총력결합해 전국 지역에 구성된다. 이랜드 매장에서 고객들을 분리시켜 이랜드에 집중타격을 가한다. 현재 삼양동 홈에버 월드 컵점을 비롯해 서울북부, 인천, 뉴코아 강남점, 과천, 평촌, 광택점 등에서 이미 지역지원대책위가 활동에 들어갔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불매운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랜드자본에 yönelik 매출타격을 안기기 위해 특히 종교단체와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집중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종교계에 이랜드자본이 자행한 부당한 비정규직 집단해고, 일방적 용역외주화 등 노동착취 실상을 고발한다.

단순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랜드자본 노동탄압에 맞서 무기한 파업농성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정당성’을 확인하고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생존을 베풀 것으로 내모는 이랜드자본의 ‘추악한 노동탄압’을 끝장내기 위해 총조작을 가동한다. 노동자 밀집 지역 중심으로 ‘이랜드그룹이 전향적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이랜드제품 매출을 완전히 끊는다는 계획이다. 즉 노동자 밀집지역에서부터 이랜드 불매운동에 돌입해 실제 타격을 가하고 ‘악질유통자본 이랜드그룹 제품불매’ 전국 소비자운동으로 잇게 된다.

조합원 특별 의료행사 시행안내

노동조합은 조합원(가족포함) 복지후생 사업의 일환으로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지정 전문병원과 제휴해 의료지원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제휴 5주년기념 및 자녀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특별 의료행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현업 지부장께서는 희망 조합원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_ 2007.07.18(수) ~ 2007.07.31(화)

행사기간 _ 2007.08.01(수) ~ 2007.09.21(금)

진료대상 _ KT직원(계약직 포함) 및 가족

신청양식 및 접수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조합 홈페이지(www.kttu.or.kr) - 「문서/정책」을 참고하십시오

성명

이광철 의원 'IPTV 누더기 도입안' 은 즉각 폐기해야

방송 통신 관련법 모두 총동, 중폭규제 총 집대성

7월 2일 이광철의원의 대표발의로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IPTV를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과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규정 ▲VOD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모두 데이터 방송으로 규정 ▲대기업 및 그 계열회사는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저회사를 통한 진입만을 허용 ▲방송구역 설정에 있어 지역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시장점유율은 고정형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기존 통신사업 면허로 서비스되고 있는 HSDPA나 WiBro를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포함시켰기에,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기존 통신업체들은 방송사업으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기존의 업체에서 이 사업을 따로 분리하여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 등 심각한 혼란과 불필요한 규제로 혼란과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또 전통적인 양방향 통신서비스인 VOD를 심지어 방송으로 규정하고, SMS,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포털서비스 및 게임 등도 모두 데이터방송으로 간주하는 무리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이른바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법안은 방송법과 모순되고, 통신법과 충돌되며, 2·3종의 규제를 두고 있는 누더기 법안에 불과하다.

특히 IT연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진입, 지역면허 등의 문제에 대해 밝혀왔다. 자회사 설립은 비용 증가를 가져와 IPTV 활성화는 커녕 국민 부담요금인상만 가중시킬 것이기에 더더욱 반대해왔던 것이다. IPTV사업의 성패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네트워크 품질에 달려있다. 이는 그만큼 많은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자회사를 통한 진입이라는 규제를 명문화하는 것은 IPTV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려는 것과 같다. 이미 DMB사업, 위성방송사업의 실패를 통해 자회사 설립이 얼마나 어리석은 정책이 있는지 경험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이광철의원이 이법을 발의한 의도는 무엇일까? 이는 IPTV 도입을 사전에 차단시켜 기존 지역 및 유선방송사업자의 독점적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차라리 이광철의원은 IPTV사업 도입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이 몇몇한 처사일 것이다.

이미 늦은 출발이다. 전세계적으로 IPTV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고용증대 효과 및 경제적 파급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IPTV의 빠른 도입과 활성화이다. 이광철 의원이 발의한 누더기 법안은 소모적인 논쟁만을 야기시킬 뿐이다. 당연히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007년 7월 31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법시행령은 노무관리법, 즉시 폐기 처분해야

필수유지업무 · 대체근로 · 긴급조정권 등 2중 3중의 파업봉쇄 장치 남발



지난 10일 정부(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동법 시행령 중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 긴급조정권 등의 2중 3중 장치가 공공부문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악법이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IT연맹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통신 분야 필수유지업무 범위로는 ?기간망과 가입자망 운영관리? 가입자 고장신고 접수와 처리로 결정한다 바, 이는 사업장 대부분에 해당되어 한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삭제하려는 뜻과 같다. 통신은

과거에 대체제가 없는 필수 수단이었으나, 현재 이동통신 확대보급 및 자유로운 번호이동제도 도입과 인터넷 발전으로 전통적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한 통신환경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수월한 노동자 통제법 적으로 보장하는 ‘노무관리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필수공익사업장 시행령 예고에 따른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개정 노동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문

제점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발제를 한 이상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민주노총은 법령을 통해 광범위하게 정의된 필수유지업무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준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면서 “노동부는 모범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을 최대범위로 설정한데 이어, 시행령을 통해 정의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역시 광범위한 업무를 망라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의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기존 단체협약으로 맺어진 쟁의행위 비참가자 범위 무력화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효력기간 ▲필수유지업무 협정 신청시 노동위원회 처리기간 ▲노사자율에 입각한 협정체결의 보호 여부 ▲노동위원회 사용자 편의성 ▲처벌조항의 사용자 편의성 등을 제기했다.

이 부장은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개정법하에 노조 쟁의의 돌입시 필수유지업무 조항을 배제해야 함으로써 내부 조직에 이질감이 증대돼 단결력은 심대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사용자는 대체근로 고용조항에 의해 신규인력, 퇴사자 등을 동원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가 합법파업을 해도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는 파업을 할 것인가 필수유지업무인력까지 동원할 것인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파업 장기화될 경우 긴급조정권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 불

법파업이 연속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면서 “역으로 법과 시행령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IT연맹이 발표한 통신분야에 해당되는 노동법 시행령의 문제점이다.

- 통신기술과 시장의 변화로 다양한 통신수단이 존재하여 대체가 가능. 필수유지업무 해당 유무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업무의 대체성이다. 통신분야는 시장과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많은 대체 역할이 발생하고 있다. 20세기에는 오직 유선 통신만이 유일한 통신수단이었던 반면 지금은 유선 이외에 무선통신,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통신은 정부소유의 한국통신(현재 KT)이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KT가 민영화될 정도로 정부에서 더 이상 통신 특히 KT를 더 이상 유일한 통신업체와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 되어 있고, 타 통신업체로 이동이 용이. 통신사업은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인터넷 접속역무, 주파수를 할당 받아 제고하는 역무 등 다양한 통신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중 망을 보유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기통신사업자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 2005년말 현재 22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시내전화의 경우 KT와 하나로 텔레콤, 데이콤 등이 있고,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의 경우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4개업체가 있으며, 수많은 별정통신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접속역무는 KT와 파워콤을 비롯하여 9개 사업자가 있으며, 지역마다 지역케이블업체가 인터넷접속역무를 겸업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번 호이동서비스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 변경없이도 간단한 가입절차만으로 타통신업체로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만약 파업 등으로 통신서비스가 불편하거나 차단된다면 소비자는 매우 간단한 변경절차만으로 타 통신업체를 통해 지속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에 업무 중단은 절대 초래되지 않는다.

- 통신기술의 발달과 보급화로 노동자가 파업을 하더라도 통신 서비스 장애는 발생되지 않는다. 최근 통신기술은 통신기술과 설비의 고도화로 고장도 시설장애가 발생하는 빈도가 극히 드물며, 국가지도통신회선, 방송회선, 군통신, 감청회선의 경우 회선이 이원화 되어 있어 통신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없다. 의도적으로 통신시설을 파괴하지 않는 한 노동자의 파업만으로 통신서비스장애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KT의 경우 상품신청 이전 해지/ 고장신고/ 요금 안내/노약자 장애인 전용서비스/ 지능망, 국제상품/ KT휴대폰 및 Wibro/ 부가영수증 발행/고객불만 사항 상담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가 2007년 1월 이후 법인화된 기업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노동자의 파업으로 국민들의 생활불편조차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130억 현금은 내면서 비정규은 해고하다니!

아무리 급해도 흠에버, 뉴코아아웃렛 상품은 사지 않습니다. 여성노동자 차별하고 해고하는 파렴치한 이랜드그룹은 불매운동의 뜨거운 맛을 봐야 합니다.

사지도 가지도 맵시다!

이랜드가 어떤 기업이길래
이랜드는 기독교 기업으로, 헌트, 브렌다노, 언더우드, 브렌드로 의료시장에 진출했다. IMF를 계기로 급성장해 2003년 뉴코아, 2006년 캐리푸를 인수합병하고 30대 기업에 올랐다.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은 지난해 수입으로 130억, 주식배당금 82억을 가져갔으나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했다.

- 임금수준 흠에버 비정규직-연간 1,000여만원, 정규직 초임-연간 1400여만원
- 근무형태 교박 서서 일하고 식사교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가며 미감조는 새벽1시까지 근무교역을 가장한 서비스모니터계 요원을 두어 직원감시
- 정규직 전환 대신 비정규직 1,000여명 대량해고
- '07개월 계약 등 계약기간을 공란을 비워놓고 회사 맘대로 기간을 정하고, 회사 맘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비정규직이 일하던 계산대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
-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도 거부
- 캐리푸 인수당시 100% 고용승계 약속 위반

“이게 도대체 기업이란 말인가”

이랜드, 노동자 탄압의 총체적 모습보여줘

이랜드노동자들이 “이랜드자본으로부터 ‘살인적 테러’에 가까운 탄압을 받아왔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랜드 사측은 수년간 자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노동탄압을 벌여왔고, 결국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해 이랜드그룹 공동파업 투쟁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이랜드 사측으로부터 “수년간 테러를 당했다”는 노동자들, 그들이 말하는 이랜드자본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공개한다.

이랜드자본 노조활동 방해공작 극심

이랜드자본 노조활동 방해공작 사례는 일일이 헤아릴 수조차 없다. 2001아웃렛 조합원들을 개인담담을 통해 회유·협박하며 탈퇴를 종용하고, 층장이 조합원을 차에 태워 탈퇴원서를 작성케 한 사실도 조합원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층장이 노조 모임에 쫓아와 감시하고, 조합원 교회 목사에게까지 전화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 심지어 조합원 성향과 탈퇴 진척정도를 적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사측이 작성한 문건 ‘노조대응 협상전략’을 통해 이랜드자본이 노조활동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 왔는지 알 수 있다. 이 문건은 “노조가 언고자 하는 것에 장애물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랜드 2002년 시나리오 ‘노조파괴’

이랜드가 작성한 ‘2002년 입투승리 시나리오’ 목표는 치밀하기까지 하다. ‘최선=조합원 중 소신과 파가 생기도록 해 파업 찬반투표 부결시킬 것(기노부와 조합원 분리), 차선=노조지도부와 타협(이연 합의), 최후=파업하면 노조 약성지도부 섬멸’이 그것이다.

이랜드 관리자가 작성해 ‘부회장님’에게 제출한 ‘PSN MEETING(1998.4.29)’ 문건은 더 기관이다. 노조 관계자들에게 대한 대응 지침인 셈이다. “사이드부터 무너뜨릴 것”, “진실된 것을 간접적으로 인식시킬 것”, “내 사람을 만들 것”, “시흥 다음 타깃은 어디?(안양) 예상할 것”, “누가 주동자인지 파악”, “모금, 복지시설 방문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위치에 있음을 감사하게 생

각하도록 할 것”, “사람에게는 원래부터 죄악성이 있다-적게 일하고 많이 원한다”, “그들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엔진 역할을 할 수 없음” 등이 이 문건 내용이다.

2001아웃렛 안전점을 비롯해 이랜드그룹 곳곳에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노골적 성희롱도 자행됐다. 소문에 따른 사생활을 문제삼아 간섭하고 해고하기도 했다. 이랜드자본은 대표가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술담배를 하지 말라고 통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흠에버 노동자들에게는 기독교인 모두 쉬는 일요일에도 영업을 시킨다.

이랜드 직무급제 사인 강요

흠에버 가장점은 이랜드그룹 내 악랄하기로 정평 난 곳 중 하나. 이랜드일반노조가 파업농성에 돌입하자 사측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피하기 위해 고안한 술책인 직무급제 사인을 강요하고, 노조 탈퇴자를 승진시켰다.

파업반대서명을 강압하고 파업 중 휴가를 불허하고 있다. 또 노동자를 통제방편으로 아이디카드를 회수하고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지문인식까지 강요했다. 일부 사무공간에 대해 일반 계산원들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인격적 모멸감도 주고 있다. 이랜드자본이 법정 노동시간 2배에 이르는 주 72시간 노동 등 살인적 노동을 강요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뉴코아, 부당노동행위점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이랜드자본으로부터 생존권을 담보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려왔다.

최근 뉴코아노조가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로부터 노동부가 제출한 사업장 점검 및 감독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노조가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랜드 뉴코아 사측은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온갖 불법적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해 해고시켰다.

계약기간이 7월1일 이후인 비정규직에게 6월30일 이전으로 계약기간을 다시 쓰라고 강요해 단

축시키고, 부서장이 계약기간 단축을 거부하는 비정규직에게 3시간동안 회유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야담지점 경우 23명 비정규직에 대해 1일, 2일, 1주일 등 초단기근로계약을 요구하고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쟁점화되자 점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파기한 후 다시 1개월로 계약해 버렸다.

이랜드 사문서위변조까지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요구해 공란기재된 계약서를 회사 임의로 기록하고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됐으며 계약해지 통보했다. 이는 사문서 위변조행위에도 해당된다. 과천지점 유00시 경우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기간을 보지 못했거나 나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말만 들었으며 결국 해고당했다. 계약해지시 사직서를 강요한 것은 물론이다. 과천지점 6명과 야담지점 11명, 평촌아웃렛지점 1명 비정규직에 대해 사측은 계약서 명시한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기간을 단축했다.

노동자에게 백지계약 강요도

회사가 수정액이나 도장을 찍어 임의로 계약기간을 단축한 근로계약서를 노동부 감독 기화로 다시 작성한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관 방문을 앞두고 퇴사한 직원과 근무 중인 직원에게 연락해 “새로 계약서를 쓰라”면서 백지계약서 사인을 강요했다.

이랜드 사측은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비정규직 7월1일 시행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계약기간을 1개월로 단축해 오다가 6월30일 전원 계약해지한다고 공표했다. 한편 킴스클럽 출신·수산코너 경우 비정규직 채용 당시 “1년 후 정규직이 된다”고 약속하고 기간이 도래해 이를 제기하자 “증거를 달라”며 발뺌했다. 뉴코아 모든 지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일방적으로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다.

뉴코아-흠에버 노동자들에 대한 이랜드자본 살인적 테러 진실이다.

가족과 함께 별헤는 밤의 추억을 강북지방본부, 7월 20일 부터 1개월 동안 운영

휴가철이다. 이즈음 되면 어디를 가야 할지가 고민된다. 이미 수련관이나 휴양 시설에 예약되었다면 아무 걱정없이 떠나면 그만이지만 탁발의 비운을 맞본 사람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휴가철 길도 막히는데 어디 가까운데 잠시 물놀이를 즐길 곳이 없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강북지방본부 조합원들에게는 타지방 조합원들이 시샘할 일이 하나 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강북지방본부 하계가족캠핑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더해 시설이유료가 전액무료라는 점이 또한 매력포인트. 캠핑 입소의 가장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수련관과 휴양시설 미입소자이다. 너무 큰 기대치는 실망을 안겨줄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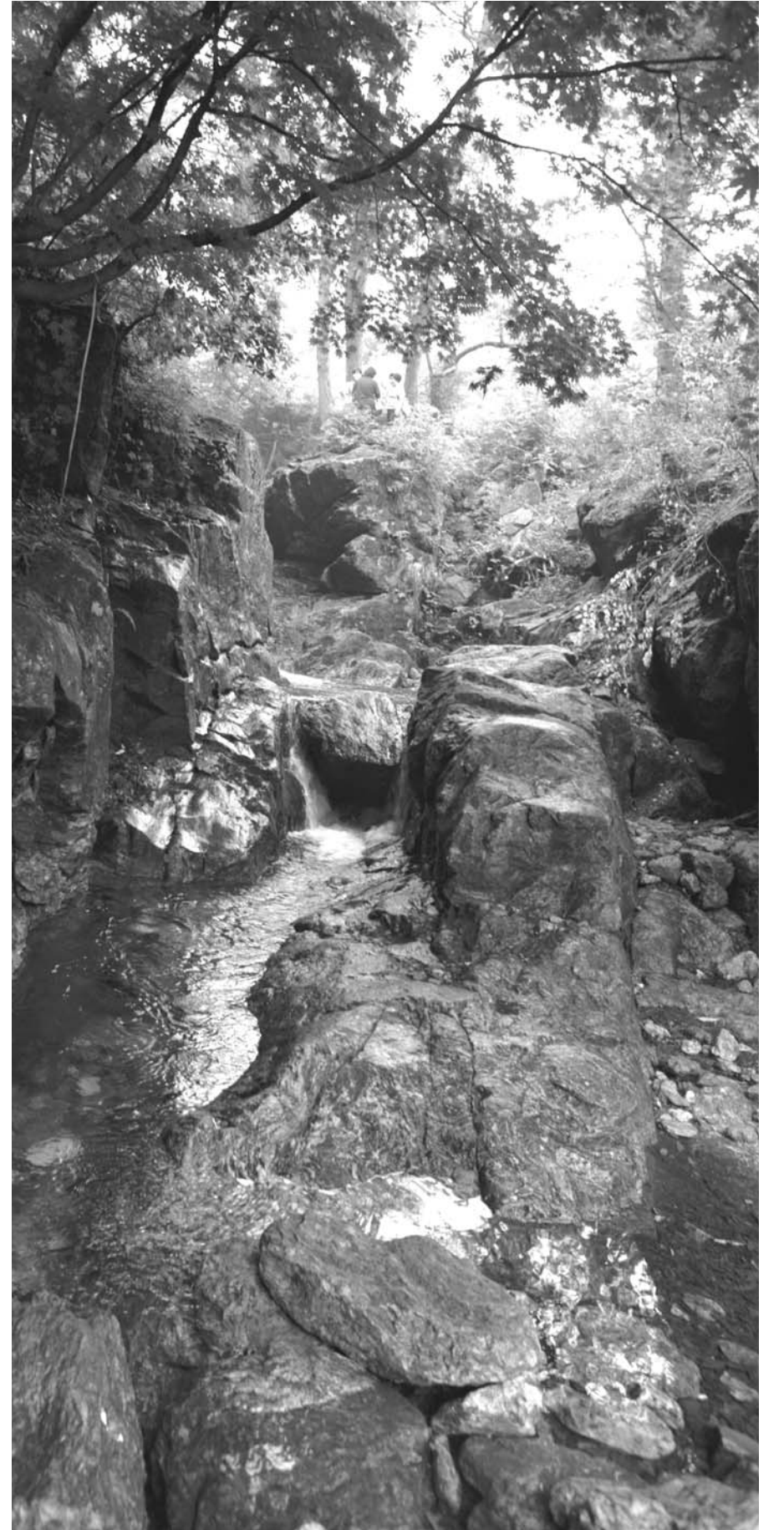
있다. 수련관이나 휴양시설을 이용한 조합원들이라면 텐트에서 2박을 해야 하고 손수 밥을 해먹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절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캠핑장의 묘미는 바로 그런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도시생활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수많은 별들과 이 별들이 모여 하나의 물결을 이루는 은하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캠핑장 내에 수목원이 함께 있어 대화와 함께 산책의 즐거움도 맛볼 수 있다. 한 조합원은 지난해에 비해 시설도 좋아지고 수목원도 있어 어른들이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계곡의 수량이 적고 상류쪽에서 공사를 해 물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름만 되면 고달픈 사람들도 있

다. 강북지방본부 상집과 지부장들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캠핑장을 설치하기 위해 지방상집과 지부장들이 인부노릇을 한다. 7월초면 캠핑에 필요한 각종자재들을 구입하고 이를 설치하기 위해 몇일동안을 피약별 아래서 일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입소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각 기수별로 돌아가며 캠핑장에서 상시대 기하고 있다.

한 지부장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도 있고 보통 3~4시간 눈을 붙이고 새벽에 일어나 청소해야 한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한다. 그래도 조합원들의 잘 쉬고 갔다는 인사말에서 괴로는 씩사신다고 웃는다.



찾아가는길

미석IC나와서 미석방향으로 직진, 미석에서 수동방향으로 간 다음 수동계곡에서 축령산 별방수목원(여울목 입간판 보임)

주변관광지

1. 몽골문화촌

캠핑장에서 약 1Km만 더 올라가면 몽골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현재 몽골 울란바타르시와의 문화교류를 위해 몽골전통춤, 악기연주, 기예, 서커스 등의 공연이 열리고 있다.
· 입장료 : 성인 2,000원, 군인·청소년, 어린이 1000원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축령산 자연휴양림

축령산(886m)과 서리산(832m)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등산로와 함께 울창한 잣나무 숲에는 숲속의 집 등 각종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자연과 함께 숨쉬며 스트레스와 지친 심신을 말끔히 씻고 즐거움과 편안함을 더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연분홍 터널을 형성하는 서리산 정상에 1만여평 철쭉군락지와 4계절 푸른 50~60년생의 아름드리 잣나무림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진한 감동과 긴 여운이 있어 여행의 설렘과 삶의 윤희를 더해 주는 수도권 제일의 자연휴양림이다.
· 홈페이지 : www.chukryong.net
· 관리주체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 이용문의 : 휴양림관리 사무소 (031) 592-0681

3. 아침고요수목원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 있는 원예수목원이며, 잣나무 숲이 울창한 축령산 자락에 신재(信齋) 한상경이 설계 조성한 수목원으로, 1996년 5월에 개원하였다. 수목원은 한국정원, 분재정원, 시가 있는 산책로, 아이리조트정원, 하경정원, 정원나리, 성서정원, 침엽수정원 등 8개의 특색 있는 정원과 아침광장, 야생화정원, 매화정원, 단풍정원, 민속놀이터, 야외모듬터, 시청각실, 산책로, 전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홈페이지 : www.morningcalm.co.kr
· 이용문의 : 1544-6703

서부지방본부 안산지부 탐방

매주 집행간부 회의 개최 단위노사협의회 · 건전모임활성화에 노력

비가오는 가운데 서부지방본부 안산지부를 찾았다. 미리 연락해둔 탓인지 지부 부서장을 비롯해 집행간부들이 모여있었다. 지부 탐방을 한다며 여러 사람들을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더니 오늘이 집행간부 회의를 하는 날이라며 괜찮다고 한다.

안산지부는 매주 화요일 아침 정기 집행간부회의를 연다고 한다. 무슨 특별한 안건이 없더라도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누다보면 지부가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서로에게 격려와 자극이 되기도 한다며 안산지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현업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주 집행간부회의를 연다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없다. 이에 대해 간부들은 자신의 일을 잠시 미뤄두고 회의에 참석하

다보니 조합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회의를 통해 더 큰 것을 조합원에게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씩스럽지만 다부진 표정을 지어보인다.

다른 기관에 있다가 안산지부로 왔다는 한 집행간부는 그래도 안산지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좋다고 평한다. 조합원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지부장을 가장 먼저 찾아가고 고충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한다.

많이 부족하다는 겸손의 말을 하는 간부들이지만 이들의 표정 속에서 조합원에 대한 신뢰는 넘치고 있었다. 요즘 노동조합 내에서는 지부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지부활동에 대한 지적이 많지만 실제 어떻게 변화시키고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많



안산지부 임종인 지부장(맨 우측)과 집행간부들

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산지부가 향후 지부활동 혁신의 한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다음은 임종인 지부장과 일문일담

Q 안산지부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해주신다면.

조합원을 위한 지부, 모든 직원이 인정하는 지부,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안산지부가 되기 위해 지부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노력하는 지부입니다.

Q 지부장님이 지부활동에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해결함으로 직원들이 신뢰하는 지부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Q 평소 건전모임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산지부 건전모임은 등산회 등을 포함

해 8개 모임이 있으며 1인 1모임에 가입돼 있습니다. 모임에는 정식회원뿐 아니라 안산지사 직원이면 누구나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안산지부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까지도 참여의 폭을 확대해 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댄스는 전국대회에서 1위까지도 했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초청받기도 합니다. '착신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1기 밴드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2기가 출범해 '서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단위노사협의회를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일단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팀별로 소속되어 있는 집행간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부 집행간부들을 통해 조합원들의 고충사항을 수렴하고 저는 아이맨이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안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위노사협

의회이기 때문에 여직원 난방시설이러든지 화장실 비데설치 등 대부분 복지차원의 요구가 많고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Q 지부장께서 권역대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권역은 안산지사내 4개 지부, 1개 분회, 안양지사내 4개지부, 1개분회, NSC 1개 지부 등 총 11여명의 지부본부장이 구성돼 권역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부가 많고 관심사가 다양하다보니 하나의 의견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도 결국은 여러 지부장님들이 지지해주신 덕분에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활동에 대한 각오를 밝히신다면.

항상 조합원의 입장에서 조합원이 먼저 요구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 지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조합을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지부장이 되겠습니다.

부산지방본부

2/4분기 노사협의회 열려

부산지방본부는 지난 6월27일 16시부터 2/4분기 지방노사협의회를 부산본부 1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18시에 협의회를 마쳤다.

이날 회의안건은 사전에 각지부의 지부장,분회장으로 부터 여론수렴하여 6월21일에 실무회의를 거쳐 정리된 것을 토론했었다.

협의안건의 결과는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사항으로 "기관별 인력충족율과 관련한 합리적 인사발령의 원칙을 준수하자(적극추진)"라는 것과 복리후생에 관한사항으로는 "장제용품을 지정단위까지 일정수량을 비치하여 장제시에 적극 지원토록 하자(타기관 요청시 적극 협조)"와 기관 및 본부 내 연합건전모임을 활성화에 대한 대책 강구(건전모임비 편법집행 근절및 효율적 집행등)"를 적극추진한다고 합의 하였다.

또한, 회사측의 제안사항인 고객가치혁신을 통한 비전실현으로 경영목표달성에 조합이 협조할것을 함께 합의하였다.

그리고 장제용품에 대한 예산(비급 여성 복리후생비)을 각 기관별 KPI 지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과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 및 사내 전산망의 속도개선(45M) 요청(소규모 지정단위 기관) 등은 중안으로 보고하여 조치하기로 하였다.



스포츠댄스 시범을 보이고 있는 안산지부 조합원

노동조합, IPTV법제화 토론회 참관

“자회사 분리 절대불가”

‘IPTV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관하여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했다.

노동조합은 이광철의원과 한국방송공로유서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IPTV가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특히 자회사 분리가 소비자의 부담과 통신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져 올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지역면허 정책은 현행 케이블TV사업자의 독과점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상징과 수도권지방본부 상집 30여명은 토론회 참가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전달했다.

●국민(소비자)의 비용부담 확대

-자회사 분리 등 별도법인 설립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및 이중 투자 부담으로 국민 통신비용 증가 예상

●통신기업 구조조정 및 고용불안 확대 가능성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 통신산업의 한계를 고려하여 IPTV 신사업 개시가 절실하나, 자회사 분리시 통신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며 질적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산업발전을 저하시키는 결과 초래

-망(Network) 고도화 작업 차질 : IPTV는 수조원이 소요되는 망고도화 작업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자회사 분리로 인한 IPTV사업 시 투자보다는 단기이익 추구에 급급할 것임

-자회사 분리 진출에 따른 신사업 실패의 선례 : 위성방송 스킴라이프와 위성 DMB사업자 TU는 투자 지연으로 초기 사업 활성화에 실패, IMT-2000사업 자회사(SKIMT, KTCOM)는 결국 합병

-IPTV는 각종 결합서비스와 연결될 때 그 파급력이 확대될 수 있음 : TPS, QPS 등

●규제 형평의 문제

-대기업 진입규제는 완화하면서 KT만 본체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규제의 형평에 어긋남

-KT의 여론 지배력은 과장된 우려: 오히려 신문 등 타 매체의 방송진출로 인한 여론 장악력이 더 확대될 수 있음

그러나 이번 토론회도 정부 기관과 업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노동조합은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IPTV의 조속한 도입과 IPTV 직접진입을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역 면허체계는 국민의 선택권 침해

-현재 지역 독점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피해 가중, 나뉘먹기식 지역 독점체계 벗어나 수용자(국민) 중심의 서비스가 시행돼야 함.

●지역 면허체계는 케이블 사업자만을 보호하는 역차별

-현재 케이블 사업자는 지역 내 독점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음

●전국면허 도입 시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 등 대비책 모색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은 보편적 서비스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 부과 중

-점유를 제한한 한 지역 내 점유율 상한을 둬으로써, 여론 독점을 방지하고 크림스키밍도 방지할 수 있음

-지역면허는 향후 전국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

-지역면허는 지역 내 차별 예방에 한계가 존재하며, 오히려 사업자간 담합이 우려됨

그러나 이번 토론회도 정부 기관과 업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노동조합은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IPTV의 조속한 도입과 IPTV 직접진입을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터뷰 - IT연맹 박흥식 위원장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박흥식 IT연맹 위원장(45·KT파워텔노조)이 19일 임시대대에서 재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공약에서도 제시했듯이 비정규직·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와 산별노조 건설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IT산업 노동자들이 결박기와는 달리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IT연맹이 제2기에 들어섰다. 중점 추진 사항은 무엇인가.

“IT산업 노동자들은 21세기에 노가다 일꾼과 다름없다. 더군다나 일주일에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해가 지면 일을 마치고 IT산업노동자들은 해가 저도 일을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다. 노조에 소속돼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은 아니지만, 양대노총에 조직된 노동자들은 5만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50만 IT산업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2006년 2월 보궐선거에서 위원장으로 처음 당선됐다. 지난 활동을 평가해 달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연맹은 설립된 지 1년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성과와 과오도 있었겠지만, 연맹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처음 위원장직을 맡았을 때는 연맹 산하에 단위노조가 4개밖에 없었다. 조합원 수는 3만2천여명이었다. 이후 조직확대 사업을 전개해 지금은 13개 노조, 3만6천여명의 조합원들이 IT연맹이라는 이름 아래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 조직확정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연맹도 안정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막내 연맹이지만, 연맹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아 가고 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산별노조의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했던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노조의 80% 이상이 산별노조로 전환했다. IT연맹은 지난 2004년에야 설립됐고, 산별노조 전환 논의도 부족했다. 이를 본격화해보자는 것이다. 임기 안에 산별노조 전환을 하고 싶긴 하지만, 이제 시작인만큼 그 시기를 확정짓기 어렵다. 최선을 다해 논의를 진행시키고 실제 전환도 추진할 것이다. IT연맹에서 가장 덩치가 큰 KT노조가 산별전환을 추진한다면 다른 노조들 또한 그 흐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연맹에서도 나타나듯이 산별노조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에서 산별노조가 만병통치약도 아닌 것도 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KT그룹 관련 노조들이 한데 모여 처음 공동임단협을 진행했다. 올해 2차 공동임단협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말이 공동교섭이지, 사용자 대표들과 노조 대표들이 함께 교섭을 벌이는 형태는 아니다. 노조끼리 공동임단협 안을 만들어서, 각 단사별로 사용자들에게 이를 요구하고 교섭을 벌이는 형태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각 단사별로 따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산별노조가 추진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할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진 못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인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하자는 생각은 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IT산업 노동자들이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안도 만들면서 조직사업도 펼쳐겠다는 기본적인 생각만 갖고 있다. 또한 건설에서도 다단계 하도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IT산업에서도 5단계 하도급은 기본이 돼 가고 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도 어렵고 노동자들도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에 처해 있다. 하도급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필수유지업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던데 그 이유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조항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원천봉쇄한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에는 노동3권을 보장해 놓고, 법률에서는 사실상 파업을 무력화 시켰다. 통신 분야에서는 기간망과 가입자망 운영관리와 가입자 고장신고 접수와 처리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결정됐다. 게다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도 가능하다. 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다른 해당노조들과 함께 끝까지, 불법적으로라도 투쟁해 나갈 것이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한때는 민주노총 내 성과싸움에 휘말려, 받지 않아도 될 공격들을 받기도 했다. IT연맹이 설립된 이후 3번의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때마다 IT연맹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았다.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힘들었다. 이런 공격들을 위원장인 제가 많이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참 힘든 기간이었다. 그런 싸움에 또다시 IT연맹의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 의정부지부 방문

“KT노조가 민주노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



이석행위원장은 지부부서장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KT노동조합이 전국사업장으로서 광범위한 지역활동 및 조직활동에 유리하다면서 그런만큼 민주노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비정규직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랜드 문제를 언급하며 노동부장관에게 ▲사정입회하에 노사교섭을 진행할 것 ▲체포영장 집행 및 고소고발 유보할 것 ▲해고자 전원복직 후 교섭을 진행할 것 등에 대해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투쟁이나 집회는 산별노조 및 연맹에 맡기고 민주노총은 국가 정책에 개입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연금 축소, 비정규직 개정, 민주노총 규율강화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오갔다.

현장대장정 중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강북지방본부 의정부지부를 방문했다.

조합원여러분 여름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휴가 7 가지 건강수칙

- ① 사용빈도가 높은 구급약품으로는 해열진통제나 지사제, 멀미약, 피부연고, 소화제, 1회용 반창고, 바르는 모기약 등이 기본이다.
- ② 음식은 익혀 먹고 물도 주의
- ③ 한낮의 햇볕노출 최소화
- ④ 안전 운전
- ⑤ 눈이 피로하지 않도록 주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백내장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아진다”고 한다.
- ⑥ 각종 물사고에 대비: 만약 수영 중 지가 났다면 당황하지 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음 물 속에 엎드린 채 지가 난 부위를 잘 주물러준다. 장먼지에 지가 났을 때는 주무르면서 무릎을 곧바로 펴고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세게 젖혀주면 쉽게 풀린다.
- ⑦ 휴가후유증 여부 체크